

정체성 확립 '진지한 연구'

조계종 불교사연구회 '개항기부터...' 주제 첫 워크숍

태고종조설·도의종조설·지능종조설 등 개항기 이후 한국불교의 종조 논쟁에 얽매어온 일제에 의해 강압되었던 종파불교의 전통을 회복하기 위한 불교인들의 자생적 노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한국불교의 정체성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9월 1일 근현대 불교사 및 종단사를 연구하기 위해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가 발족시킨 불교사연구위원회의 첫 번째 워크숍에서 중앙승가대 김상영 교수가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종조와 법통인식'을 주제로 발표한 논문을 통해 제기됐다.

김상영 교수는 "정화운동시대의 종단 분쟁과 연계되면서 종조·법통 논쟁은 비학문적, 감정적 방향으로 치달고 마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해 논쟁 자체를 부정적으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적어도 일제강점기에 진행됐던 논쟁에 대해서는 정

당한 평가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종조·법통 논쟁을 일제강점기 구한말 불교인들의 종파 재건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개항기부터 8.15해방까지 한국 불교와 조계종'을 주제로 열린 워크숍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9개의 소주제에 대해 마라톤 발표 및 토론을 벌였다. 이번 워크숍은 '태고종사' 파문으로 제기된 조계종 역사 및 정체성 문제도 워크숍 개최 목적으로 포함돼 관심을 끌었다.

워크숍에서 '조선불교 선종과 수좌대회'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김광식 교수(부천대)는 조선불교선종을 등장시킨 수좌대회의 전모를 알려주는 '조선불교선종수좌대회록'을 입수해 당시의 회의 진행 상황, 회의에서 결정된 선서문, 종규, 규칙 등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발제문에서 김광식 교수는 "1935년 3월의 수좌대회는 1934년 12월 선학원이 재단법인 선리참구원으로

전환된 이후 수좌들의 현실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 대회"였으며 "자기 정체성을 정비하고, 불적 토대를 구축하면서 수좌들이 나아가 할 노선, 방향을 구체화했다는 지표로서 분명한 역사적 성과를 담보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광식 교수는 또 "수좌대회를 통해 수좌, 선원, 선리참구원이 일체가 돼 조선불교선종을 설립하고, 선원 및 수좌들의 조직체인 종무원을 출범시킨 것에서 기존 교단과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은 이 외에도 △개화기 사찰의 조직과 운영(한상길) △근대 불교 교단의 변천 과정(김순석) △사찰령과 30본산 확정의 의미(한동민) △전근대와 근대의 갈등(법진스님) △교사(校史)의 정립과 중앙불의 지형도(고영섭) △근대 한국불교의 타종교(이재현)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남동우 기자

北 수해민에 생필품 전달 종단협, 강원도엔 '성금'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는 올 여름 수해로 고통을 당한 북녘동포들을 위해 전국 70여개 사찰에서 모신 생필품 8만여점 (시가 5억 2천만원 상당) 등을 북한에 지원한다.

종단협 등은 9월 4일 조계종 총무원 앞에서 불자들이 모아준 컨테이너 10대 분량 내의, 양말, 비누, 치약, 수건 등 생활용품과 밀가루, 라면, 식용유, 건설자재 등을 트럭에 싣는 상차실을 지른다.

이번 물품지원에는 조계종 5천만 원, 천태종 2천만 원, 진각종 2천만 원, 종단협 1천430만 원을 모금해 힘을 보탤 것이며, 불자들의 백중재물품 보시가 큰 힘이 됐다.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해 전달될 이번 구호물품은 13일 인천을 통해 남포항으로 보내진다.

또 종단협은 12일 수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강원도 인제군과 평창군민들을 찾아가 수해성금을 전달한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 등 불교계 지도자들은 8월 한 달 동안 각 종단이 모금한 성금과 불교텔레비전에서 모금한 성금 등 8천500만 원을 인제군과 평창군청에 전달하고 수해복구현장을 찾아가 수재민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김주일·조용수 기자

“한·스리랑카 우호 지속 되길”

지관 원장 랏트나시리 총리 예방 받고 환담



최근 부산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ILO 아태지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스리랑카 랏트나시리 위크라마나야카 총리 일행이 8월 3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지관 스님은 먼저 위크라마나야

카 총리에게 이번 아태지역 회의의 성과를 묻고 스리랑카 정부와 국민들의 안정과 평화를 축원했다. 특히 조계사 마이트리를 비롯해, 파주보광사, 안산 마하보디 사찰 등 국내 외국인 승려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스리랑카 불자들의 우호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위크라마나야카 총리는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총리실을 통해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용수 기자



“아! 석가모니불” 제21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시상식이 8월 30일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석가모니불'을 출품한 석조각장 남진세(왼쪽) 씨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글·사진=김지연 기자

동국대 총장 '종교성 논란' 불씨 지퍼

이사회사 '...불자' 용어 '...자'로 바꿔 논란 예상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8월 31일 동국대 본관에서 제222회 이사회를 열고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총장 후보자를 2명 추천하도록 했던 것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변경했다. 총추위 구성인원 중 동문을 4명에서 3명으로, 사회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개정했다.

특히 총장 후보자 자격 중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불

자'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로 변경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의 경우 해석 범위가 넓어져 향후 총장 후보자 자격 논란의 소지를 남기게 됐다.

이사회는 또 성추행 논란이 있었던 동국대 이모 교수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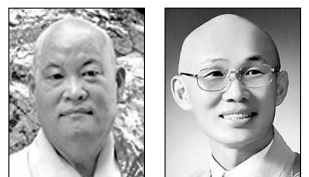
공학과와 기숙사 신축과 관련, 소

하기로 하고, 오장동 소재 오피스텔 매입건과 경기도 양평 소재 하천 부지 매각건도 승인했다.

한편 총장 직선제를 고수하고 있는 교수회는 '총장후보추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광 스님(선학), 염준근(통계학), 이항우(경찰행정) 정윤길(정치외교학) 교수를 총장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쳐 재단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남동우 기자

태고종 총무원 부장 인사 교무백운·기획부장 법안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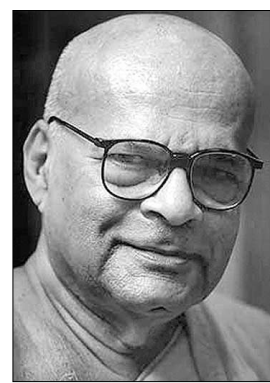
태고종 총무원장은 8월 30일 교무부장과 기획부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신인 교무부장에 전 기획부장 백운 스님(왼쪽·강원종무원장)을, 기획부장에 전 교무부장 법안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김주일 기자

스리 담마난다 스님 입적

회교국 말레이시아서 포교 진력... 국내에도 저서 '인기'

말레이시아의 세계적인 불교지도자 스리 담마난다(Ven. Dr K Sri Dhammananda·사진) 스님이 8월 31일(현지 시각) 폐탈령 자야에서 입적했다. 세랍 87세.



1919년 스리랑카 남부에서 태어난 스님은 12세에 출가, 이후 1952년 회교국 말레이시아로 건너와 말라야 지방에 정착해 일평생 포교에 매진해왔다.

스님은 회교국인 말레이시

아에서 청소년과 여성포교에 주력한 결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수백만 명의 불교도가 생겨

을 정도다. 스님은 50여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한국에서도 대표 저서인 <헌명한 사람은 마음

을 다스린다(How to Live Without Fear and Worry)>와 말레이시아 포교의 성과물<불교이야기> <붓다의 위대한 가르침> 등이 소개됐다.

조용수 기자

예비스님 185명 탄생 조계종 행자교육원 회합

조계종은 9월 1일 사미 115명 사미니 70명 등 예비 스님 185명을 배출했다.

올해 제31기 행자교육원 8월 10일~9월 1일까지 23일간 조계종 지식사에서 개원해 남한자 118명, 여행자 71명이 입교했다.

5급 승가고시에는 남한자 3명을 제외한 186명이 합격했으며, 이날 만덕전에서 봉행된 수계법회에는 185명이 참석했다.

50세 이하 출가가 허용되고 처음 열린 이번 행자교육은 해인율원장 무관 스님을 유나로 <사미(니)율의> <초심삼자경문(조계종사)부처님 생애(예식의례)(작법) 삼보일배, 3000배 철야수행 등 강도 높은 교육이 진행됐다. 조계종은 1991년 합천 해인사에서 처음 열린 후 총 6495명이 행자교육을 이수했다.

조용수 기자

1994년 멸빈자 사면 바람 솔~솔

원두스님 등 '이제 고령인데...' 총무원 주변 '회합' 의견우세

올 3월 1998년 멸빈자 사면에 이어, 94년 멸빈자 사면문제까지 얽힌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4년 조계종사태 당시 멸빈당한 총정 사서실장 원두, 시대 불교신문 발행인 해은, 불국사 주지 총인 스님 등은 8월 28일 "종정 스님, 원로위원장 스님 등도 수차례 유시를 통해 사면을 통한 종단통합을 언급한 만큼, 종단차원에서 94년 멸빈자에 대한 본격적인 사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두 스님은 "당시 징계 받은 이들이 현재 모두 70세 이상의 고령"이라며 사면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7월 제38차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에 "3차례 등원 통보만으로 본인의 진술이나 변호없이 결석인 상태로 징계가 확정됐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실천승가회 토진 스님은 "이미 고령이 된 스님들에게 족쇄를 채우지 말고 사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규위원회의 사면심판 상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총회 사무처장 법진 스님도 29일 "법규위원회가 멸빈문제를 다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한 것일 뿐"며 "그분들의 사면자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회계사 주지 수경 스님은 "단순히 인정의 문제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94년 개혁종단의 정신과 정체성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먼저"라며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상사 도법 스님도 "사면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서로 "다만 종헌준법에 맞게 절차를 통해 해답을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며 여운을 남겼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멸빈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종단차원의 94년 멸빈자 문제 공론화가 조만간 가시화 될지 주목되고 있다.

조용수 기자

문의 : 02-3673-3426

제13회 韓國美術史研究所 學術大會

봉은사의 가람배치와 불교미술의 새로운 조명

일시 | 2006년 9월 9일(토) 오후 1시 50분 장소 | 동국대학교 문화관 1층 덕암세미나실

학술대회 일정

13:50 **대회사** ... 문명대(한국미술사연구소 소장)

<1부>

주제발표 사회 : 김 창 균(동국대학교 교수)

14:00~14:30 **봉은사의 가람배치**

... 김홍식(명지대학교 교수)

14:30~15:00 **봉은사의 불상(대웅전의 삼세불상)**

... 문명대(한국미술사연구소 소장)

15:00~15:30 **봉은사의 불화**

... 김정희(원광대학교 교수)

15:30~16:00 **휴식**

<2부>

주제발표 사회 : 최 성 은(덕성여자대학교 교수)

16:00~16:30 **봉은사의 건축**

... 김동현(한국전문문화대학교 교수)

16:30~17:00 **봉은사의 조경**

... 정재훈(한국전문문화대학교 교수)

17:00 **인사말**

...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

17:10 **폐회사**

봉은사의 가람배치 및 정원의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봉은사의 가람배치와 불교미술의 새로운 조명"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금번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는 봉은사 가람의 배치구조와 함께 현존하는 불상, 불화, 건축의 조사 및 연구, 실측을 통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전통문화 체험과 불교 신행활동을 위한 도량정비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 학술대회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주 최 : 한국불교미술사학회 주 관 : (사) 한국미술사연구소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